

금호타이어(주)

'96 금호타이어 체육대회 개최

광주·곡성공장 5천 금호인의 대동한마당, '96 금호타이어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2일 엠주동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오전 10시 선수단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우승기 반납, 국민의례, 대회사, 선수단 대표선서, 대회기 게양 등 1부 순서를 마치고, 개그맨 김종석 씨의 사회로 OX퀴즈, 풍선배구, 기마전 등 각종 게임으로 2부를 진행하였다. 남 일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체육대회가 모든 금호인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는 한다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금호인 모두의 기량을 마음껏 과시하는 축제의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부에서는 초청가수 김혜연 씨와 이선희 씨의 열창무대와 사우들의 장기자랑이 있었으며, 4부에서는 행운권 추첨, 우승기 수여, 장기자랑 시상식과 폐회식이 있었다. 이날 경기는 홍군과 청군으로 나뉘어 각종 경기와 응원전에서 열띤 경합을 벌였으나 응원전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점수를 많이 획득한 홍군이 최종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체육대회의 마지막은 승리를 거둔 홍군은 곡성공장 공장장 탁성두 상무가 대회기를 수상하고,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을 모든 직원이 함께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장식했다.

'96 서울 에어쇼, 우리회사 항공기용 타이어 전시

21세기 항공우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항공 우주산업의 저변 확대와 기초 산업 육성을 위한 '96 서울 에어쇼에 우리회사 B767-300(ER) 등 민항기용 타이어와 군용기용 타이어가 전시되었다.

한국공군과 한국항공우주 진흥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관련품 전시와 시범 및 곡예 비행, 항공우주 심포지엄, 항공우주산업 테크노마트 등의 내용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9일동안 화려하게 개최되었으며, 약 50만여명의 관람객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중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관련품 전시회에는 22개국에서 214개 업체가 참여하여 1,057개의 Booth가 설치되었으며, 우리회사는 B홀 086 번 Booth에 민항기용 타이어 B767-300(ER), B747-400, B737-400, 군용기용 타이어 F-16 C/D, BLOCK 30, F-4D, F-5A/B, F-5E 총 9본

을 출품·전시하였다.

1975년 군용항공기 타이어 개발을 시작한 이래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회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타이어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홍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품질경영대회 시상식

매년 11월 ‘품질의 달’을 맞이하여 품질경영활동에 앞장서온 공로자와 우수업체를 발굴·포상하는 ‘전국 품질경영대회 시상식’에서 남상기(광주공장 제조2부2과) 대리와 6명이 4개부문에서 품질명장상 등을 수상하였다.

지난 11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시상식은 혁신의지를 다지고 노사화합의장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우리회사에서는 4명의 품질명장과 분임조부문에서 대통령상 금상 2개, 은상 1개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 후 박정구 그룹 회장과 계열사 사장단들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나누며 내년에도 세계 최고를 꿈꾸는 임직원들이 많이 발견되어 초일류 금호를 앞당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우성타이어(주)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교육 실시 및 현장 환경영경영
초기영향 평가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본사 교육실에서 200여명의 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ISO 14001 환경영경영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인증기관의 심사요원이 당사 현장에 대한 환경영경영 초기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ISO 14001 시리즈는 산업 혁명 이후 각종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및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심각한 환경영문제가 야기되었고 급기야는 지구촌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의 팽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제정된 법안으로 원료의 사용, 제품의 생산,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등 지구의 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 아래 기업의 환경과 관련한 정책, 목적, 방침 및 운용절차의 환경영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화하였다.

이에 당사에서도 ISO 14001 환경영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료의 사용 감소, 에너지 절감 등을 구체화하여 궁극적으로 지구 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외부 인증기관의 심사요원(TÜV Rheinland)으로 하여금 자체 ISO

14001 세미나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장 Survey 시 지적된 환경영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 실사하여 당사 환경 유해요소 제거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며, 이번 교육내용을 기초로 하여 향후 ISO 14001 인증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사원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6년도 2차 내부품질감사 실시

'96년도 제2차 사내 내부 품질감사가 지난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전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품질경영 시스템 실행결과에 따른 품질기록 및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율성 점검, 품질경영 시스템 관련 '96년 계획대비 실행 여부 점검, 각 부서의 문서관리상태를 주요 체크포인트로 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11월 13일부터 3일간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TÜV사의 ISO 사후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간부 동종업계 시찰 및 대리점 방문

지난 9월 9일부터 19일까지 5명씩 4개조를 편성한 우성타이어 노동조합 간부 20여명은 조별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동종업계 현장을 비롯한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금년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준비자료 수집차 마련되었는데,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동종업계를 비롯한 일반 제조업체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단체협약관계, 근로조건, 후생복리 등의 실태를 조사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울권, 광주권, 대전권, 영남권에 위치한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하여 판매현황과 기타 일선 대리점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등 회사의 영업환경을 접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사내 운동경기 개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사 테니스장에서 본사 및 양산공장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내 운동경기가 개최되었다.

생산관리팀 주최로 열린 이번 운동경기는 사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되었는데, 부서별 족구 16개팀, 배구 14개팀 총 266명의 사원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배구경기에서는 제조1과, 축구경기에서는 기술연구소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편 각 경기 결승전에 앞서서는 노사팀 대표 친선경기가 펼쳐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회원사소식

한국타이어제조(주)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찾은 「온달의 집」

대전시 대화동 39번지 가파른 언덕배기에는 몇채의 붉은 벽돌이 연이어 서 있다. 그 건물들 중 「사랑이 가득한 집」이라는 커다란 옥호가 유난히 방문객의 시야를 가로막고 선다. 사랑이 가득한 집이라니 대체 어떤 사람들 이 이 집에 사는 것일까?

이곳은 197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보호시설(온달의 집)이다. 이곳에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원칙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이들이 자라 18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이들을 받아줄 마땅한 보호 시설이 불충분하다 보니 실제로는 18세 이후의 장애인들까지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장애의 주된 증상은 정신박약과 지체부자유, 간질, 다운증후군 등이다.

이곳에는 현재 284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다.

지난 10월 9일, 대전공장에서는 공장장, 부공장장 이하 각 지부장 그리고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이곳(온달의 집)을 방문하였다. 평소 기업의 사회봉사 참여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대전공장 박인환 공장장은 온달의 집

을 방문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삼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장애인들은 생겨나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 이상 우리가 이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사명감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들에게 나누어줄 사랑이 제게 있다는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박공장장의 확고한 방침 아래 앞으로 대전공장은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전사원들을 조별로 나누어 온달의 집을 방문, 청소 및 그들과의 대화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제는 단순히 혼자 잘 살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으로서의 한국타이어가 되도록 선두에서서 실천하는 대전공장이 되자는 다짐과 함께 이날의 뜻깊은 방문을 저녁 어스름에 마무리했다.

한국타이어 협찬 '열린음악회'

우리회사가 협찬한 대전사랑 대축제 '열린음악회'가 지난 10월 20일 화려하게 대전의 가을밤을 수놓았다.

제14회 대전 한밭문화제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액스포

공원 남문 광장에서 거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 팜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성악가, 가수들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지역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Global 기술개발체제의 구축-ATC 준공식

지난 10월 10일 오전 10시, 국내외 타이어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Ohio주 Greentown에서 우리회사의 미국 기술센터인 ATC의 준공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대지 8,000평, 전평 1,350평에 자리잡은 본 신축건물은 1년여 공사기간 동안 약 600만달러의 건축비가 투자되었으며, Office동과 실험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조양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준공은 북미지역에서의 당사 기술개발 의지를 확인시키는 상징이며, 소비자지향의 제품개발에 ATC가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본 준공식에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하여 업계 관련인사가 대거 참석하였고 미국 Ford사에서는 초청인사 모두가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